

종교계 올핸 '나눔 사랑 실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지역 종교계가 바빠 움직이고 있다. 올해는 각 교파별로 '포교·복음의 해'로 정한데다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근)은 자비신행회 등 지역 신행단체와 함께 '섬 불교 포교단'을 결성하고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매달 한 차례씩 섬 속에 자리한 사찰을 찾아 포교활동하고, 섬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각종 나눔봉사를 펼친다. 의료봉사를 비롯해 미용봉사, 떡국공양, 연예인 초청공연, 연꽃 방죽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개신교에서는 해외 선교훈련 등 신앙심을 북돋울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중앙교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교회 성도 등 20~3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태국으로 선교훈련을 다녀올 예정이다. 광주동명교회, 겨자씨교회 등도 국내외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제일교회는 올해에도 한국·일본·대만 코이노니아 연합캠프를 가질 계획이며 매년 '사랑의 바자'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온 광주월광교회는 올해도 역시 '사랑의 바자'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민의 복음화 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광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정재 장로)도 성서화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올해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아시아 문화전당 정상적 추진, 2015 세계 U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천주교계도 '새로운 복음화의 해'를 맞아 사목활동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6일부터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가톨릭 신앙생활을 위한 연수를 가질 예정이며 20일부터는 '아버지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초대'라는 주제로 여수 선원동성당에서 '제16기 아버지학교'



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지난달 31일 신안군 임대도를 찾아 섬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제공>

불교·천주교 등 '포교·복음의 해' 정해 선교활동 주력

복지확대 소외계층 보듬기... 5·18 30주년 행사 준비도

를 연다. 또 2월 사제평의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를 논의하고, 오는 5월에는 매년 5·18 주간에 실시해온 청소년 5·18 도보순례와 추모미사(임동, 5·18 국립묘지)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교회일치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온 '광주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갖고 개신교와 천주교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원불교는 새로운 교구장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정택 교구장 취임식과 신임 교무 봉고식을 갖고 교회·자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원불교 광주전남대교구는 '찾아가는 교화'를 통해 청소년 교화활동을 강화하고 교리대학과 단체·지구별 활동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원기 100년을 5년 앞두고 있는 만큼 교세와 영향력을 키워 지역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법인 '원빛골'을 중심으로 노인복지·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자선사업도 활발하게 펼친다는 복안이다. 이미 터를 잡아 놓은 수완지구 교당은 3월중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3월 4대 종교지도자들의 주도로 문을 열었던 무각사 '재활용장터 보물섬'도 3월부터 다시 열려 '나눔 실천'을 이어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00년전 보성군 발행 공문서 가치는?

보성선씨 호구첩... 언어·풍습 등 시대상 기록

7일 KBS1 TV '진품명품'서 가치 상세히 소개

600년 전에 보성군이 발행한 공문서 한 점이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 녹화에서 공개돼 문화재급 가치를 인정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공문서는 지난 1421년 세종 3년에 보성군이 발행한 '보성선씨 호구첩'〈사진〉으로, 요즘은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종류의 문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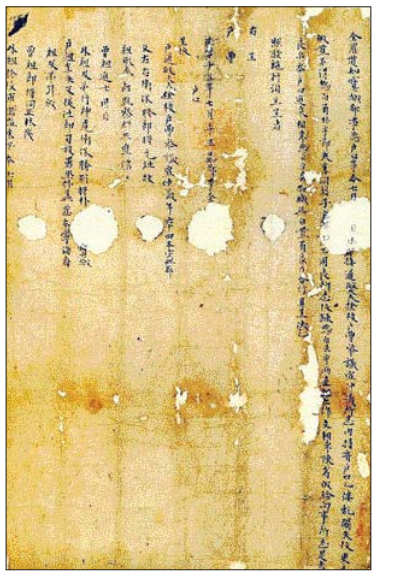
이 호구첩은 당시 호조참의였던 선종의(宣仲義)의 호적 재발급 요청에 따라 보성군수 재결·전라도 경유·호조의 공인을 받은 진본의 옛 공문서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특히, 이 호구첩은 8조에 대한 계보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를 살았던 인물들이 기록된 '려조 호적'으로 학계의 분석 결과 조선조 이성계 일가의 호구첩 다음으로 오래된 진본으로 문화재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또 당시 보성군정의 공문서 생성 과정과 민원서의 형식과 절차, 민원 응대, 공문서에 통상 사용되는 언어, 문자, 풍습 등을 통해 700년 전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용 중 "본 호구를 보성군에 제출하게 하여 상고해보니, 가감(加減)이 없습니다. 마땅히 시행하도록 갖추어 올립니다. 앞드려 바라옵건 데 잘 살피셔서 시행하십시오" 등의 문안에서 보성군 민원처리가 대민 위주였음을 엿볼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 문서는 그동안 보성 선씨 문중에서 보존해왔으며,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 중으로 오는 7일 KBS1 TV '쇼 진품명품'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그 내용과 가치가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선씨 문중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호구첩은 국보로 지정된 이성계 일가의 것이며,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 '보성선씨 호구첩'으로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3년 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중준 문학박사와 문화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천원으로 행복문화 충전

표공연예술위, 8일 문예회관서 콘서트

'천원으로 행복문화 충전하세요.'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천원의 낭만' 음악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음악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순애(소프라노), 장주은

(메조소프라노), 가현주(알토), 최교성(바리톤), 임대근(테너)씨 등 5명의 성악가가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강건너 봄이 오듯', '그리운 마음', '뜻있어', '옛 노래' 등 한국가곡과 성가곡 '은혜 아니면', 오페라 '마술피리' 등 다양하다.



<최순애 씨> <임대근 씨>

또 나인스트림 챔버가 찬조출연, 드라마 '하얀거탑' 주제곡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관객들이 참여하는 행복 플러스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8회 광주비엔날레 밑그림 나온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사진)이 오는 11일 광주에서 전시 주제와 참여 작가·작품 일부를 공식 발표한다. 지오니 감독은 오는 8일 광주를 방문, 지역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재단 실무자들과 전시 추진을 위한 팀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또 11일 오전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주제와 전시 컨셉트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오니 감독은 전시 주제와 관련 지난 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제는 일정한

전시 주제·참여 작가 등 지오니 총감독 11일 발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작품·작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평가되거나 미처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은 우리가곡 부르는 날

호신대 티 브라운 카페서

한달에 한번 모여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 가곡 부르기' 2월 행사가 5일 오후 7시30분 광주 호신대 티 브라운 카페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안사', '사공의

노래' 등 작곡가 흥난파의 대표곡을 함께 부른다.

또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김성석씨와 '보리밭'을 가곡 부르기 2월 행사가 5일 오후 7시30분 광주 호신대 티 브라운 카페에서 열린다.

그밖에 심옥효·정명규씨 등 회원

들이 '하늘 빛 너의 향기' 등으로 실력을 뽐내며 작곡가 김경양씨를 초청, 김씨의 작품인 '두물머리 연가'를 함께 배워본다.

'광주전남 우리 가곡 부르기'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모임을 갖는다. 2월 모임은 설날 연휴로 앞당겨서 진행한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16-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결로곰팡이방출' (Mold and Dust Mite Removal)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various service details.

Advertisement for '제주악영투어' (Jeju Adventure) featuring scenic views of Jeju Island and travel information.